전북도, 영농기 전 가뭄 선제 대응 나서

행정부지사 주재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 현장점검… 1197억원 투입 수리시설 정비 ·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도는 2일 임실군 섬진강댐지사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가뭄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수 공급체계와 기관 간 협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일부 남부 지역에 가뭄 '관심'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도내 용수 공급 능력과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자연재난과, 물통합관리과, 농촌사회활력과 등 관계 부서와 정읍·김제·임실·부안군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기관별 가뭄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전북도의 가뭄 상황은 기상·농업·생공용수 전 분야에서 '정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2,153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80.7%로 평년(79.1%) 대비 102% 수준이며, 용담댐(54.2%), 부안댐(68.8%), 섬진강댐(55.6%) 등 주요 수원도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기상 불확실성에 대비해 총 1,19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관정 개발, 양수장 정비, 저수지 준설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별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저수량이 평년 대비 113%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가뭄 심화 시 광역상수도 연계 공급 등 비상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시는 섬진강댐 수위 저하에 대비해 전주권 및 부안댐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김제시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임실군은 중·소형 관정 개발과 수리시설 정비로 가뭄 취약지역 용수원을 확충 중이며, 부안군은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형 관정 개발과 함께 위도 지역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우리 도의 저수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가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인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임실군 섬진강댐지사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가뭄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수 공급체계와 기관 간 협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전북의 맛 · 품격을 담다

도, '올해의 건배주' 선정… 탁주 등 4개 제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 '한국술도가의 빨간월탁(정읍)' △약·청주 부문 '유유양조의 변산노을(부안)' △과실주 부문 '배산명주사 고창LB의 복분자음(고창)' △증류주 부문 '비즌양조의 화동원42(남원)'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씩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 출품을 허용하고, 제품 평가 비중을 70%로 상향하는 등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공모에는 9개 시군에서 총 17개 제품이 출품됐으며, 서류 및 관능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제품을 선정했다. 서류 평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과 인공 감미료 첨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관능 평가는 주류 전문가 5인이 참여해 맛과 향,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 공식 행사에 활용하며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 올해의 건배주' 역시 공식 행사 건배주로 활용하고, 언론 홍보와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기자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터 만든다'

도, '청년친화기업' 10곳 선정…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대상기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청년의 도내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40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대림씨앤씨㈜(완주) △㈜한국에너지기술단(전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완주) △㈜엄지식품(김제) △주식회사 미라클에이지아이(전주) △주식회사 시크한(군산) △주식회사 씨엔와이더스(전주) △주식회사 코어솔루션(전주) △㈜에스엠전자(전주) △유한회사 태산(전주) 등이다.

이들 기업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등 정부 인증을 보유하고,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선정 기업에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인증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금 1,000만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최대 2,000만원(1인당 1,000만원), 육아휴직 대체 근무 수당 등이 지원된다.

/이만호기자

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학(원)생 부담 완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직전 학기 발생 이자를 지원해 대학(원)생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해 연간 총 1억7,7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원)생으로, 재·휴학생은 물론 졸업 후 5년 이내 청년까지 포함된다. 다만, 세부 지원 기준과 범위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지원 내용은 지난 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 전액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상환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진 절차는 신청 접수 이후 시군 1차 심사와 전북도·한국장학재단 간 자료 연계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지원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국가 R&D 추진기관 대상 홍보 컨퍼런스

새만금의 미래산업 실증 · 사업화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집중 소개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 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전략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리고, 향후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입지적·제도적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새만금은 넓은 가용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광역도로망, 장기임대용지 등 대규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새만금개발청)가 사업 전반을 총괄·실행함에 따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예산·행정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며,, 현재 새만금은 자율주행 실증,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 등 국내 최초의 다양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에는 다수의 연구기관이 이미 입주·운영 중이고, 기업 집적과 함께 다양한 실증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 기반도 형성되어가고 있다.특히, 최근 현대자동차의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은 정부의 K-R&D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육성방향과 맞닿아 있어, 새만금은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가는 데 있어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넓은 부지, 신속한 인허가 등 미래산업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두루 갖춘 혁신거점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중견기업 교류의 장 '네트워크 데이' 추진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 소통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내 중견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추진되는 정기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 교류 시간을 시작으로 △전북중견기업협의회 소개 △중견기업 지원정책 및 동향 설명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기업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3DEXPERIENCE 플랫폼'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플랫폼은 제품 기획부터 설계, 제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가상 환경에서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혁신 솔루션으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생생장터-전북사랑도민증

연계 동시 가입 행사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전북생생장터와 전북사랑도민증을 연계한 동시 가입 행사가 추진된다.

2일 이번 행사는 두 플랫폼을 함께 가입할 경우 1만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배송비 포함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동 선정·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전북생생장터 기존 회원 중 전북사랑도민증 신규 가입자 또는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 중 전북생생장터 신규 회원이다. 특히 이용자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 만족도를 높혔다.

2분기(4~6월) 제공 품목은 △대추방울토마토 △유러피안 샐러드 상추 △천연한끼 콩나물해물 육수팩 등 3종으로 구성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민주 도지사 경선 '양자 대결'로 재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과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에서도 성명을 내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김관영 도지사의 사퇴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민주당 독주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등으로 정치 지형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일 오전에는 전북개헌운동본부 회원 30여명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 즉각 사퇴 및 민주당 전북도당의 사과 및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 욕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되면서 두 후보 모두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기존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던 조직과 표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이탈로 생긴 공백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이번 도지사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번 사태는 향후 공천 시스템과 후보 검증 절차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당내에서는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당 정치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과제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구도 재편을 넘어 '정치 신뢰 회복'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의 정책뿐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원택·안호영 두 예비후보가 어떤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전북 정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현직 도지사인 김관영 지사의 제명이라는 초강수로 빚어진 이번 초유의 사태는 전북 정치에 적지 않은 큰 충격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전북 정치의 전환점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만호 기자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610억원 지원

도-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분기 지원 규모는 총 610억원이 편성됐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공장 및 부지 매입, 기계설비 구매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협약금리 4.35% 가운데 2.18%를 전북도가 이차보전해 기업의 실제 부담금리는 2.17% 수준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자체 투자비의 50% 범위 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마련됐다. 기업당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은행 대출금리에서 전북도가 2%에서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기업은 나머지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협약금리 4.35% 중 3.18%를 지원해 실제 기업 부담금리는 1.17%의 저리 수준이다.

자금별 접수 기간은 구분해 운영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13일부터 17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중동 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상시 접수한다. 2025년도 피해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2%가 적용된다. /오상근 기자